

헬스케어 힘 주는 보험사… 빗장 열린 규제에 사업 ‘청신호’

헬스케어 플랫폼 속속 등장
홈트레이닝 등 서비스 확대
라이프 기반 연계상품 출시
포인트로 보험료 납부 가능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다양한 타 기업과의 협업과 헬스케어 플랫폼을 활용한 연계 상품을 속속 내놓으면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본격적인 헬스케어 사업에 첫발을 내디딘 곳은 신한생명이다. 신한생명은 지난해 12월 보험사 최초로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했다. 신디지탈 헬스케어 플랫폼 ‘하우핏(HowFIT)’을 출시해 비계약자를 포함한 일반인에게 인공지능(AI) 홈트레이닝 서비스 등 기존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다.

7월 오렌지라이프와 합병 후 신한라이프라는 새 이름을 걸고 헬스케어



신한라이프와 CJ제일제당의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 체험 예시 이미지.

신한라이프

사업을 본격화했다. KT, CJ제일제당과 각각 하우핏의 공동사업모델 추진, 고객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약을 맺었다.

성대규 신한라이프 사장은 지난 6월 열린 미디어데이를 통해 “현재 신한라이프는 디지털과 헬스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이며 디지털 사업은 1그룹 4개 부

서로 확대 편성을 통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 1, 2년 이내에 디지털과 헬스케어 산업 부문에서 일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라이프생명보험의 모기업인 시그나는 스타 마케팅 전략을 내걸었다. 시그나는 기존 헬스케어 서비스가 마케팅 용, 공급자 중심이던 것에서 벗어나 사

용자 중심의 실질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서비스에는 하이브 소속 가수인 세븐틴이 참여한다.

세븐틴이 참여하는 헬스케어 플랫폼 ‘튠(TUNE) H’을 통해 시그나만의 풍부한 헬스케어 역량을 펼쳐 나간다는 전략이다. 튠H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점진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퍼스널 웰니스 코치’ 서비스다.

헬스케어 플랫폼과의 연계 상품도 줄줄이 출시되고 있다.

AIA생명이 최근 내놓은 ‘AIA 바이탈리티’ 암보험은 헬스 앤 웰니스 활동을 지속할 경우 매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AIA 바이탈리티는 AIA생명이 지난 2018년 SK C&C 및 SK텔레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출시한 프로그램이다. 보험의 보장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알고, 개선하며,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 금융위원회의 규제 개선까지 더해지며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사업 진출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최근 보험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규제까지 개선되며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헬스케어와 보험에 대한 관심이 맞물렸다”라며 “향후 고령화 시대 등 다양한 요인이 더 작용하며 헬스케어 플랫폼 관련 시장의 규모는 지속해서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고향 못가니 현금출금 줄고 이체 늘어

신한은행 빅데이터 트렌드 리포트
출금횟수 18% ↓, 이체횟수 8% ↑
부모님 관련 이체 비중 156%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동이 자제되면서 추석연휴 은행·ATM기에서의 출금은 감소한 반면 계좌 이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신한은행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트렌드 리포트 ‘추석판 논치코치 금융생활’에 따르면 코로나 이

후 출금횟수는 18% 감소한 반면 이체 횟수는 8% 증가했다.

이체금액 또한 늘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2019년 건당평균 이체금액은 50만원에서 2020년 61만원으로 23% 증가했다. 40대는 같은 기간 65만원에서 73만원으로 12% 늘었고, 50대는 68만원에서 78만원으로 14% 증가했다.

이체금액은 주로 부모님 용돈으로 쓰였다. 이체메모를 보면 부모님 관련 키워드 비중이 2019년 대비 2020년 156% 증가했다. 특히 40대의 경우

남성의 부모님 관련 이체 비중이 39%에서 42%로 가장 크게 늘어, 남편 측의 고향방문이 줄면서 용돈목적의 이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주 마이데이터 부서(Unit)장은 “앞으로도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할 예정”이라며 “ESG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자사주 5000주 매입

총 9만8127주 보유… 임직원도 동참

우리금융그룹은 손태승 회장(사진)이 자사주 5000주를 장내 매입해 총 9만 8127주의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임원들도 손태승 회장의 자사주 매입에 동참했다.

손태승 회장은 지난 9일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공고 직후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번 매각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성공적인 완전 민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시현해 펀더멘탈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희망수령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분 매각이 성공할 경우 시장의 수급 안정 및 우리금융그룹 완전 민영화 달성에 기업가치 상승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다음달 하순 3분기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주친화정책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석 기자 ysl@

한화생명, 러닝 전문가와 ‘라이프 캠페인’

러닝 코칭… 캠페인 참가자 모집

한화생명이 고객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한화생명은 자사의 라이프어드바이저(LIFE ADVISOR) 캠페인이 ‘러닝(Running)’을 주제로 2차 캠페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Running’ 캠페인은 이날부터 29일까지 라이프어드바이저 홈페이지에서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다.

이번 캠페인은 육상 국가대표 출신 장호준 선수(2018년 대만오픈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남자 3000m장애물 1위)를 비롯해 러닝 인플루언서인 지니코치(이진이) 등 러닝 전문가 및 인플루언서

6인이 라이프어드바이저로 참여한다.

어드바이저들은 10월 16일부터 3주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호흡법, 보폭 및 피치 등 러닝 기초부터 근력운동 이미징 트레이닝까지 마라톤완주에 필요한 다양한 러닝 스킬을 가르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고객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전문성 있는 라이프 어드바이저가 크고 작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속해서 풍요로워지는 삶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지난 10일 SC제일은행 임직원 여성 리더 봉사자들이 ‘골앗홈(Goal@Home)’ 여자 대학생 코치단을 대상으로 비대면 리더십 멘토링을 하고 있다.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외화선물·환전 경품 이벤트

추첨 통해 전자제품 등 증정

NH농협은행이 추석을 맞아 외환서비스 관련 이벤트를 진행한다.

NH농협은행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올원뱅크의 외환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추석엔 내맘대로 환전하고 달러도 선물하세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동안 NH농협은행에서 ‘감동! 외화선물하기’로 외화를 선물하



거나 ‘내맘대로 외화BOX’로 환전하고 객 증 추첨을 통해 비스포크 큐커(1명), 갤럭시 버즈2(5명)를 제공한다.

/권소원 기자 think@

같은 기간 동안 NH농협은행 공식 SNS계정(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는 해당 서비스 관련 퀴즈를 맞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경근 기업투자금융부서 부행장은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금년에도 많은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비대면 추석을 보내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리 환전준비도 하고 달러도 선물하며 서로의 지친 마음을 달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 미래 여성리더 위해 멘토링

여성 임직원이 직접 멘토로 나서

SC제일은행이 ‘골앗홈(Goal@Home)’에 참여하고 있는 미래 여성리더를 대상으로 리더십 멘토링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골앗홈’은 청소년기의 여자 초등·중학생들이 건강한 신체와 경제적 자립심을 갖춘 미래의 여성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홈트레이닝 방식으로 교육하는 SC제일은행의 사회공헌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번 멘토링에서는 SC제일은행의

부장급 이상 여성 임직원으로 구성된 ‘여성네트워크’를 통해 멘토링을 실시하고, 진로와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소그룹 단위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기경 여성네트워크 회장은 “멘토링에 참여한 여대생 코치단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여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당당한 여성에서 더 나아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여성 리더로 성장하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